

# 환상의 포백라인 찾아라

베어백호가 2007 아시안컵축구에서 '그물망 수비'를 펼친 최적인 포백(4-back)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핼 베어백 감독은 제주도 서귀포 전지훈련의 목표를 조직력 확보와 최상의 베스트 11 구축을 위한 밀그림 그리기로 놓고 강도 높은 미니게임을 통해 선수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력했다.

## 베어백호 아시안컵 대비 '수비실험' 강화 고강도 미니게임으로 개인별 능력 측정

태극전사들은 23일 첫 소집훈련부터 매번 10분씩 4쿼터로 진행되는 미니게임을 치르면서 자신의 능력을 베어백 감독에게 호소하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29일 이라크와 평가전(오후 8시·제주월드컵경기장)에 앞서 베어백 감독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안정된 포백 라인의 구축이다. 베어백 감독은 미니게임 때마다 송종국(수원), 김치곤(서울), 김치우, 김진규, 강민수(이상 전남), 오범석(포항), 김동진(제니트) 등 7명의 수비요원들을 번갈아 세우면서 다양한 포백라인의 조합을 시험하고 있다.

왕백의 경우 송종국-김동진과 오범석-김치우를 한 쌍으로 묶어 안정된 수비력과 더불어 활기찬 오버래핑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결정을 내리기 힘든 부분은 역시 경기를 후반에서 조율하는 중앙 수비수 조합이다. 베어백 감독은 서귀포 훈련에 앞서 올림픽대표팀의 중앙 수비를 담당해온 김진규-강민수 콤비를 아시안컵 대표팀으로 불러들

여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소집훈련 첫날 '김동진-강민수-김진규-오범석'으로 이어지는 포백을 시험했던 베어백 감독은 이틀째 훈련부터 '김치우-김치곤-김진규-오범석'과 '김동진-강민수-김진규-송종국'조를 번갈아 가동하면서 꼼꼼하게 능력을 평가했다. 특히 미니게임을 치르는 동안 베어백 감독은 포백 조합에 상대 공격수의 압박이 들어왔을 경우를 가정해 전방의 빈 공간을 노리는 패스와 더불어 안정된 볼 처리에 대한 중요성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미드필드진과 최전방 공격수와는 달리 수비 선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부상으로 빠진 이영표(포항)의 대안으로 떠오른 김동진은 "나의 경우 (이)영표 형이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지는 바람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며 "미니게임을 치르다 보면 선후배 관계없이 주전경쟁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 아시안컵 우승" 30%

축구 팬 29.5%가 2007 아시안컵축구 본선에서 한국이 47년이나 쌓인 한을 씻어내고 우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축구전문지 '베스트일레븐(www.besteleven.co.kr)'과 해외축구 전문사이트 '사커라인(www.soccerline.co.kr)'이 7~18일 축구 팬 1천334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아시안컵 예상 성적을 물어본 결과

394명(29.5%)이 1위를 차지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핼 베어백 감독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힌 4강 진출은 343명(25.7%)으로 두 번째 많았고 8강 진출을 내다본 응답이 19.9%(265명)였다. 그러나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답도 17%(227명)로 꽤 많았다. 준우승을 점친 의견은 7.9%(105명), 우승, 준우승

'베스트일레븐'·'사커라인' 설문  
"4강" 63% - "조리그 탈락" 17%

을 포함해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응답은 63.1%였다. 베스트일레븐은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김남일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베테랑과 젊은 피가 조화를 이룬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가 팬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달리듯 공중부양' 장대높이뛰기 로맹 매닐이 장대높이뛰기에 성공하고 있다.

26일 독일 뮌헨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팀컵 육상대회에서 프랑스의 /연합뉴스

## 'NBA 테스트' 김주성 무릎 통증 조기 귀국

미국프로농구(NBA) 구단의 입단 테스트를 제안받고 캐나다로 출국했던 김주성(28·원주 동부)이 무릎이 좋지 않아 조기 귀국했다. 한순철 프로농구 동부 사무국장은 "김주성이 NBA 토론토 랩터스의 훈련캠프 초청장을 받고 19일 출국했으나 현지에서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해 26일로 예정됐던 귀국날짜를 앞당겨 어제 돌아왔다"고 25일 밝혔다. 한순철 사무국장은 "김주성의 부상이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조기 귀국을 결정했으며 김주성은 대표팀 훈련에 전념하기 위해 태릉선수촌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론토 구단도 아쉬움을 전했지만 일정이 맞다면 8월에 다시 김주성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안종관 감독 사표 수리

'여자축구의 히딩크'라 불려온 안종관(41) 여자국가대표팀 감독이 지휘봉을 놓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5일 "안종관 감독이 지난 3일과 10일 일본과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3, 4차전을 치른 뒤 본선 진출이 사실상 무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향후 대표팀을 이끌 코칭스태프를 논의, 결정하느라 결국 오늘 안 감독의 사표를 받아들었다"고 밝혔다. 2001년 처음 여자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안 감독은 2003년 태극에서 열렸던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미국 여자월드컵 본선진출권을 따내며 한국 여자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들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6일(화)

- ▲메이저리그(세인트 루이스-뉴욕M) (08:00·Xsports), <샌디에이고-샌프란시스코>(11:05·Xsports)
- ▲제61회 황금사자 전국고교야구대회 <안산공고-세광고>(13:00·KBSN Sports)
- ▲전국역도선수권대회(14:10·KBS1)
- ▲프로야구<두산-삼성>(17:40·KBSN Sports), <한화-KIA>(18:20·SBS스포츠)
- ▲일본프로야구<라쿠텐-요미우리>(18:00·MBC ESPN)

## 청소년축구 "4강 신화 다시 한번"

20세 이하 대표팀 사기충천  
캐나다와 연습경기 2-0 승

20세 이하(U-20) 청소년축구대표팀이 캐나다와 연습경기에서 완승을 거두고 '멕시코 4강 신화'를 재현할 체비를 산뜻하게 마쳤다. 다음달 1일(이하 한국시간) 몬트레올에서

개막될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 대회를 앞두고 토론토에서 마무리 훈련 중인 청소년대표팀은 25일 오전 BMO경기장에서 열린 캐나다와 비공개 연습경기에서 공격수 하태균과 신영록(이상 수원)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전날 동유럽 강호 체코와 평가전에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쳐 1-0으로 이겼던 한국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경기마저 승리로 장식해 세계 4강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키웠다. 전반을 득점없이 마친 한국은 후반 9분 골 지역 정면에서 상대 수비가 걸려낸 볼이 하태균의 발에 맞고 골로 연결돼 주도권을 잡았다. 이어 후반 29분 심영성(제주)의 패스를 받은 신영록이 골 지역 왼쪽에서 수비를 찢고 왼발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4회 연속(총 8회) U-20 월드컵 본선에 오른 캐나다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본선에서 미국, 브라질, 폴란드와 '죽음의 조' D조에 든 한국은 조별리그를 치르는 몬트레올로 27일 이동, 다음달 1일 열릴 미국과 1차전을 대비한다.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할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b>개업·성업 안내</b>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 본사 시편부(062)222-8111	<b>김대감술갈비</b> 영광군 읍곡읍 신화사내과맞은편 소갈비, 돼지갈비, 생으로리소, 오리훈제 삼겹살, 냉면 전문 ☎(061)351-5730	<b>4Meye안경화정점</b> 화정2동 대주@앞 안경·렌트렌즈 전문점 대표 권영진 ☎(062)351-2003	<b>드림결혼정보</b> 중흥동 안보화관사거리 주택공사앞6층 초혼, 재혼, 국제결혼 베테랑, 필리핀, 중국 결혼상담전문 ☎(062)524-3337	<b>토마토테라피</b> 진월동 한신1차정문앞 대표 권성심 ☎(062)676-8116	<b>사랑방문흥점</b> 문흥동 석암동출입맞은편 국내산 최고급 생삼겹살전문점 대표 이성숙 ☎(062)265-0966	<b>은혜간병소개소</b> 학동 시외버스정류장건너편 간병인실본, 하실본 가정에서도 간병드립니다!! ☎(062)236-1050	
<b>왕곡식당</b>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미남출입맞은편 소머리국밥, 육계장, 수육, 소머리곰탕전문 대표 김을자 ☎(061)334-7780	<b>홍도아구탕</b> 목포 신정동 대성동문사거리 삼성병원앞 이구 요리의 명가!! 최선의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이현숙 ☎(061)274-8389	<b>고향식당</b> 영광군 백현리 영광우체국사거리 태권도체육관앞 굴비백반, 조기매운탕, 병어조림, 비빔국수전문 대표 김정남 ☎(061)353-1700	<b>아미지테라피</b> 장동 구노동부맞은편 보성북치테크2층 기혈에너지심부설, 아유로메디, 특수경력, 집터, 여드름, 피부질환, 광주, 전남지역 체인점 수시모집 대표 김재열 ☎(062)232-5337	<b>장보고</b> 송하동 광주대입구 대표 장부춘 ☎(062)675-6611	<b>수일통닭</b> 진월동 광주대입구 30년 전통의 명가 양동 후라이드, 양념치킨 대표 김정민 ☎(062)674-8292	<b>주흥학사역술원</b> 중심사입구, 피터외식산업건너편 신수, 시주, 궁합, 택일, 작명 대표 이정자 ☎(062)227-3698	
<b>나주곰탕</b>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미남출입맞은편 곰탕, 소내장탕, 전골, 수육, 돼지훈제 단제순남예우환영 대표 박병주 ☎(061)332-9639	<b>갯두리해물찜</b> 목포 신흥동 하당 노동부맞은편 해물 요리 전문점 대표 이재현 ☎(061)287-4600	<b>동짓날</b> 용봉동 용봉시장과 호반1차@사이죽전문점 대표 기금순 ☎(062)525-3888	<b>월출산학염소식당</b> 장동 노동부맞은편 김명원내과옆골목 영암 월출산 농장직영 학염소수육, 학염소전골 전문점에야산환영 대표 김인섭 ☎(062)236-1181	<b>교차로 자원</b> 두암동 동협3거리 두암우체국맞은편 고철, 비철, 신문, 피지 재활용품매입전문 대표 김인섭 ☎(062)251-0823	<b>약산암(여이지점술원)</b> 지산동 법원사거리에서 법정대리법랑 시주, 관상, 택일, 묘점, 병점 보살 구희자 ☎(062)222-7169	<b>센터곰탕</b> 운수동 광산경찰서맞은편 내장국밥,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모듬국밥, 머리고기수육, 새끼보, 곰창구이 전문, 곰창볶음 대표 김정민 ☎(062)942-6331	<b>최고루두암점</b> 두암동 무등피리차와 위미에서 청명국밥, 광주 대표주자, 최고의 자랑하는 최고루 최고재료, 최고주방장 전하준님 신숙배달 대표 유상필 ☎(062)1577-8552
<b>매일식당(종잡이네)</b>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미남출입맞은편 곰탕, 육계장, 국밥, 수육전문 대표 박병주 ☎(061)332-0479	<b>갯바위낙시</b> 목포 상동 평화광장 우미파크빌5차 앞 갈치낙시 출조전문점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을 환영합니다 대표 이현숙 ☎(061)285-9522	<b>박명숙미용실</b> 대인동 구사거리하국회의원사무실앞 펴머, 염색, 헤어메뉴얼 5% 할인 원장 박명숙 ☎(062)232-5613	<b>행복한밥상하남공단지점</b> 장덕동 하나은행하남로점 우측상가 부페식3,000원 식대는 선불 점심12:00~14:00/저녁 17:30~19:30 주치사실안버 대표 박상숙 ☎(062)419-7788	<b>정통중화요리 흥궁</b> 주월동 구귀빈에식장3층 탕수육, 양꼬치, 고추장제육, 떡볶이, 4인기준 주치사실안버 대표 박상숙 ☎(062)234-5253	<b>엄마손회무침전문점</b> 학동 목화예식장앞 대표 박상숙 ☎(062)234-5253	<b>고려인삼진산고</b> 중흥동 안보화관사거리 전대동청화관 옆 WWW.kointec.org 건강유지, 체력보강을 필요로 하시는분 대표 김정민 ☎(062)521-3600	<b>한백년결혼상담소</b> 북동 천주교건너편 국제결혼, 초혼, 재혼 전문업체 상담을 환영합니다 대표 유상필 ☎(062)527-6672